

aT, 여름배추 시범재배 현장 점검 나서



▲전북 남원시 준고랭지 여름배추 시범재배 현장점검 사진

수매 - 김치 제조 - 유통 연계로 배추 수급 안정 기반 마련 노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5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재배적지 발굴과 수매, 제조, 유통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여름배추 시범재배 포전을 점검했다.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로 강원 고랭지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며, 배추값이 한 포기 7천 원대까지 오르는 등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aT는 지난 2월 선제적으로 원예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범재배로 확보된 물량을 정부 수매로 시장과 연결하고 김치 제조·유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배추 수급 안정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한 남원시 여름배추 포전은 지리산 자락 해발 470m 준고랭지에 위치해 있으며, 신품종 '하라두'와 '태광' 품종을 정식해 재배하고 있다. 그동안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 고랭지였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

산간 지역에서도 재배 가능성이 확인되어 향후 새로운 재배지로 자리매김할 경우 수급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을 둘러본 홍문표 aT 사장은 "남원 시범재배 포전은 6개 준고랭지 재배지 중 하나로, 관수시설 이용 여건이 뛰어나 여름배추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하라두 등 신품종 배추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유통되고 생산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수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T는 이번 시범재배로 수확된 배추를 최대 300톤까지 정부 수매에 참여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득 보전을 지원하고, 수매 물량 중 '하라두' 품종은 세계김치연구소와 연계해 품질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치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김치 제조 실증까지 추진해 상품성을 점검하는 등 여름배추 수급안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기능성 쌀 '도담쌀', 혈당 조절·장 건강 개선 효과 확인

저항전분 함량 높여 대사 건강 개선

농촌진흥청은 국산 기능성 쌀 '도담쌀'이 혈당을 낮추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대사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담쌀'은 일반 쌀보다 아밀로스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저항전분을 10% 이상 함유한 기능성 쌀이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도담쌀'에 열 가공 기술을 적용해 저항전분 함량을 늘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열 가공한 '도담쌀'을 활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대사 건강 효과를 확인했다. 고지방식과 '도담쌀'을 함께 먹인 실험군은 고지방식만 섭취한 실험군보다 공복 혈당이 48.3% 낮았으며,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부티르산(장내 유익균이 만드는 단쇄지방산)이 약 2.8배 증가했다.

분변 속 장내 미생물 분석 결과,

'도담쌀' 섭취군에서는 저항전분을 분해하는 대표 유익균인 루미노코커스 브로미가 34.1% 검출됐고, 장 점막 보호와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낙산균도 나타났다.

반면, 고지방식만 섭취한 군에서는 두 균주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마말리코코스 시유리)은 고지방식 군에서만 확인됐고, '도담쌀' 섭취군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성과

는 2024년 12월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IF 8.2)에 게재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미 '도담쌀' 기반 가공기술과 당뇨·비만 개선 식품 제조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 가공 간편성 등 다양한 제품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품질관리평가과 하태정 과장은 "앞으로도 기능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산업화 지원을 통해 국내 소비 확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11PHMM9175도담쌀 포장관리

농기평, 생성형 AI 기반 RAG 시스템 도입

연구 기획·평가 효율성 제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은 지난 21일, 생성형 AI 기반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검색증강생성)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RAG 서비스는 농기평이 다년간 축적해온 농식품 R&D 성과와 정책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정보 탐색 시간을 대폭 줄이고 연구 기

획·평가·관리 전 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는 △농식품 R&D 보고서 △연구 동향자료 △연구개발 혁신 관련 법령 등을 사전 학습해,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질문의 맥락을 이해해 요약·분석·문서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이나 정책 기획에 필요한 인사이트 도출도 가능하다.

노수현 농기평 원장은 "이번 AI 기반 서비스는 단순한 검색 시스템을 넘어, 과제관리·기획 담당자가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 정보를 신속하게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돕는 혁신적 도구"라며 "향후 국민에게도 서비스를 확대 개방해 농림식품 연구성과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포장육·달걀 이동차량판매 허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닭·오리의 식육 포함, 이하 같다)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8월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사막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며, 식약처는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

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포장육·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etimes.com

성수동서 국산 밀 소비·홍보 행사 성황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4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 D동에서 열린 '햇밀 장'과 연계해 국산 밀 소비·홍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햇밀장'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햇밀과 가공 제품을 선보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해 국산 밀의 우수성과 활용 가치를 체험했다.

이번 행사에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국산 밀 업계 관계자와 '2025년 국산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27개 업체도 함께했다. 현장에서는 통밀빵, 베이글, 면류, 전통과자, 주류 등 국산 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의 전시·시식을 진행했다.

방문객들은 제품을 직접 맛보며 국산 밀의 새로운 매력을 확인했다.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도 적극적으로 구매 의향과 개선 의견을 밝히며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이어갔다.

한편, 정부가 올해 처음 수매한 신품종 '황금알 밀'로 만든 밀가루 샘플도 외식·제과제빵 업계 관계자들에게 제공돼 눈길을 끌었다. 황금알 밀은 2019년 농촌진흥청에서 출원한 품종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제빵용으로 적합하고, 또한 면류와 과자 제조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홍보 행사 현장 사진(aT 제공)

농축환경신문

1998년 10월 26일 정간 등록번호 서울다 0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 02-582-4016 팩스 : 02-582-4002
 광고신청 전화 : 02-582-4016
 이메일 press@nonguetimes.com
 홈페이지 www.nonguetimes.com
 자 매 지 농업경제
 발행인/편집장 김대경 | 인쇄인 이경자
 구독신청/배달안내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96,000원
 농협은행 301-0328-9561-51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제분

Enriching your life

대한제분은
지난 70여 년을 쉬지 않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고객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변화와 혁신을 즐기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